

11월호

Contents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정보와 끼기 활용교육’	2
2016.10.20_집단동료상담 진행 후기	4
2016.10.27_집단동료상담 참여 후기	5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전동휠체어 활용교육’	6
클리닝 사업 진행후기	8
일정 가득한 친선 보치아 대회 참여하며.....	10
주택개조(도어락 설치)사업 현장방문	12
(자립생활주택 - 이가문환체임) 뮤지컬 “아이다” 관람기	14
체험! 김치 담그기~~	16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되길.....	18
이달의 정보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문지수

2016년 10월 19일(수) 강북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정보화기기 활용 교육’은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어플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자립생활교육은 SNS소통연구소 소속이신 이종구 소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맡아주셨다. 유쾌한 강사님의 인사로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보화기기 활용교육답게 개인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습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강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때 쓰는 어플로 이 안에 숨겨진 어플들에 대하여 피해쳐보는 시간이었다.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도 QR코드를 인식하여 친구추가를 하는 방법과, 녹음 기능 활용하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어플이 낯설지 않아서인지 강사님의 진행에 쉽게 따라왔다.

교육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참여자 분들 중 김00님은 갤럭시노트1 사용자로 속도가 매우 느려 강사님의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실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1부 강의를 마쳤다.





휴식시간이 지나고 2부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사님은 참여자분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운 탓이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셨다.

“죄송하지만 걸옷 좀 벗겠습니다.”

“네~”

2부 강의도 1부 강의와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먼트캠’ 어플을 통한 캐리커처 만들기로 특히 여성참여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참여자들의 연령층이 일정하지 않아 2부 강의부터 살짝 막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2부 강의를 지나가고 3부 강의는 ‘유튜브’ 어플을 이용하여 음악과 동영상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어플은 모든 연령층이 배우면 좋은 것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아 인기가 좋았다.

그렇게 3시간동안 진행된 정보화기기 활용교육은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진행된 수업으로 참여자분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90%이상 매우 만족이었으며 진행을 유쾌하게 해주신 SNS소통연구소 이종구 소장님께서도 다음번에도 우리 강북센터 참여자분들을 모시고 다른 강의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남기기도 하였다.

강사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강의 끝!!!

“아는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강의를 들어 주시는 분들의 고생이 더 큼니다. 감사합니다.”



집단동료상담 진행 후기

박계형

2016년 10월 20일(목) 집단동료상담의 진행 건으로 12명의 참여자분들이 모였다. 2시 ~ 5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소속이신 하옥순 팀장님께서 이번 집단동료상담을 진행하시게 됐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현수막을 붙이고 기본적인 세팅을 준비했다.



집단동료상담 시작 15분 전, 하옥순 팀장님께서 도착하시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처음에 참여자 분들 모두 어색해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1부 강의에는 참여자 모든 분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 및 PR 시간이었다. 강사님께 서는 이렇게 말을 하셨다.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해보실분?”

“.....” 순간 정적이 흘렀다.

“머차피 모~두 다 할 거예요~” 라는 강사님의 말에 장00님이 손을 번쩍 드셨다.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라는 장00님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1부 강의를 시작되었다.



개인별 자기소개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함과 경청의 자세 등 상담진행에 있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팀장님께서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며 참여자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1부 강의를 끝나고 같이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그렇게 2부가 시작되면서 구성원의 문제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 후 장애유형과 특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분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

집단동료상담 참여 후기

박지훈(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습생)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진행된 집단동료상담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송경아 주강사님과 권준경 부강사님께서 이번 교육을 맡아주셨고, 참여자분들이 오시기전 본주히 강의 준비를 하였으며, 이번강의에는 비장애인의 활동보조인분들 센터 선생님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 할 수 없었고 장애인의 참여자분들만 남게 되었다. 나도 장애인이었기에 이번 강의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활동보조인분들과 선생님들께서 모두 나간 신 주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가 시작되자 강사님께서 '집단동료상담에서 동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많은 대답이 나왔다. 질문에 대답을 들으신 주 강사님께서 동료상담에서 의미하는 '동료는 장애인 대 장애인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하셨다.

집단동료상담에 설명이 끝난 후, 강사님께서 이번시간에는 모두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같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와 장애등급과 같은 조금 특별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참여자분들께서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강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색한 분위기는 조금씩 사라졌다. 다른 참여자분들께서도 조금 특별한 자기소개를 하시고 나도 최선을 다해 나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렇게 모든 참여자분들께서도 조금 특별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려서 어느새 첫 번째 강의가 끝날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장애란 무엇이며 장애의 종류 장애인들에 고충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배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강의는 끝났으며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애에 대한 유익한 교육으로 인해서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장애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상담' 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나는 비슷한 장애인분들에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마음과 이해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전동휠체어 활용교육’

박남주

2016년 10월 24일(월) 14:00 ~ 17:00 강북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 ‘전동휠체어 활용교육’은 전동휠체어 자기진단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휠체어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자립생활교육은 Good Job 보조공학센터 김세영 주임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강의가 30분 늦게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의 대부분 참여자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참여자분들 생각은 달랐다. 내가 전동휠체어 전문가인데 무슨 교육을 들어~~~~ 라고 하시면서 1부 강의가 시작되었다.



1부 강의는 간단한 Good Job 보조공학센터 소개와 자기진단 시간이었다. 참여자분들이 기본적인 전동 휠체어 활용법은 알고 있었지만 강사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동영상 시청을 통한 외국의 다양한 전동휠체어 유형과 전동휠체어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가……, 등등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참여자분들과 활동보조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부 강의가 끝나고, 2부 강의는 전동휠체어 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평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오래 탈 수 있는 관리방법 등 유지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은 이 강의에 관심이 높았으며, 1부 강의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3부 강의에는 질의응답 및 준비하신 보조기기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것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참여자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 할 때 나타났던 전동휠체어의 문제점은 생각보다 많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하여 강사님과 직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다.



강사님께서 가져오신 보조기기 휠체어를 체험해보기도 하였다. 새로운 보조기기에 참여자 분들 중 윤00님과 김00님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셨다.



윤00님께서서는 직접 체험도 해보셨다.
“진짜 편하네요.”
보조기기 체험 후 윤00님의 첫 마디였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전동휠체어 활용교육이 끝난 후, 참여자분들께서는 강의 시작할 때와 달리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인가 등등 이번 교육 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다음번에도 전동휠체어 교육을 꼭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다.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동휠체어 전문가가 될 때까지 내년에도 강북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립생활교육 진행은 쭉~욱~^^

클리닝 사업 진행후기

주영경

강북센터 내 선택사업인 클리닝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세탁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클리닝 사업 담당이 되면서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 진행이 더딘 것도 있었다. 일단 클리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유역 인근 세탁업체 탐색이 1순위였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수유역 인근에 세탁업체가 매우 많다는 것…….

수유역 인근에 위치한 많은 세탁업체를 탐색하던 중 다른 곳과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크린토피아 수유역점’이었다. 이곳은 8가구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하고 세탁완료 후 배송까지 해준다고 해서 바로 선정하게 됐다.

업체는 선정되었지만 1인당 50,000원으로 잡힌 예산을 토대로 세탁물 수거량을 명시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재질과 무게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 선정된 8가구를 대상으로 클리닝 사업과 관련해서 공지 및 안내하고 2개의 조로 나눠 선정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나마 한가한 시간대인 오전시간에 세탁물을 수거하도록 했다. 일정 조율을 통해 그 다음 주에 바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8가구의 세탁물을 수거하니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다. 수거된 세탁물이 세탁완료가 되면 다시 배송되기까지 총 3-4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탁완료된 것들을 배송한 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클리닝 사업에 선정된 8가구 모두 세탁업체의 친절함과 세탁물 수거 시 사전에 개별연락을 통해 일정과 시간에 맞춰 진행해줘서 매우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클리닝 사업은 이러한 높은 만족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담당자로서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생각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진행시기가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내년 클리닝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시기를 봄 쯤 진행 하는 것과 선정인원을 늘려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마무리는 친절함 크린토피아 수유역점을 소개로 끝을 맺도록 하였다.~~~~



열정 가득한 친선 보치아 대회 참여하며.....

문지수



새벽 공기를 뚫고 노원구청 2층 대강당으로 우리 강북센터 대표 선수 분들과 직원들이 홀로 차가운 새벽공기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강북센터 팀이 이길 수 있을까..?’

10월 29일 10:00 - 16:30, 자조모임 보치아 연계로 서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삼색공의 열정 <팀 친선보치아대회> 일정 있는 날이다.

김옥영 선생님과 이병철 선생님(김옥영 선생님의 활동보조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과 김성진 선생님의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김성진 선생님은 연습을 하는데 공을 던져 표적구 쪽으로 정확히 겨냥해 닿았다. 전원 다 모였다.

팀 친선보치아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소히 담소를 즐겼다.

다른 센터의 팀들도 오고 나서 대회의 막이 올러졌다.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강북 센터 팀도 잘할 수 있을 꺼라 생각했다.

드디어 강북센터팀 차례가 왔다..!! 강북센터팀의 선수 김성진 선생님, 서태원 선생님, 김옥영 선생님, 오재준 선생님이시다. 다들 긴장하셨는지 그





러한 기색이 보였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나를 비롯한 강북센터 식구들은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관람하였다.

강북센터 팀도 잘하지만 상대 팀도 너무 잘한다. 상대 팀이 먼저 우세했지만 역전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아쉽게도 강북센터 팀은 졌다.

아쉬움이 있어 패자부활전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그 마음을 수그리고 다른 팀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차후에도 보치아 대회에 강북센터 팀이 참가하게 되면 그 땀 만만치 않게 높은 실력의 강북센터 팀으로써 상대방을 긴장시키게 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이다.”

“Don't be afraid of failure. Failure is soon the mother of success.”



주택개조(도어락 설치)사업 현장방문

주영경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한 장치 보강 등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과 사생활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택개조(도어락 설치) 사업 선정자 4명 주택에 방문하여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만족도 조사 차원으로 현장방문 예정이었으나, 각 개인별 사정으로 인해 현장방문 일정을 잡기까지 어려움이 발생했다.



9월 06일(화) 박00님 주택에 주거환경 실태조사 차원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도어락 설치 전 사진을 찍었고, 도어락 설치 후 박00님과 사전에 일정을 맞춰 10월 14일(금) 현장방문을 했다.



사진 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현관문에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아 강도 침입 확률이 높아 도어락 설치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현장에 방문하자 박00님은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도어락을 설치하니 편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도어락 설치와 같은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생각과 사생활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도어락 설치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 마음이 좋지 않았으며, 내년에는 도어락 설치 건을 늘려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자립생활주택 - 여가문화체험]

뮤지컬 “아이다” 관람기

박남주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가형 주택 입주자 2명과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단기체험을 진행 중이었던 학수 씨까지 모시고 뮤지컬 관람을 위해 총 출동한 인원은 활동보조인, 실습생, 코디네이터 포함하여 6인! 공연이 제일 잘 보이는 앞자리에서 관람하고 싶었던 우영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VIP좌석으로 예매를 해 두었기에 입주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인원이 많다보니 2팀으로 나누어 장애인콜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단기체험자 신학수씨 팀이 먼저 도착하여 티켓을 발권하고 입주자 팀을 기다리게 되었다.



22일 입주일을 기다리며 2박 3일 동안 단기체험을 함께 한 학수씨는 이번 12월 3일자로 폐쇄



예정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의 이용 지이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삼겹살도 함께 구워먹고 환대를 받으며 기분 좋게 단기체험의 첫 스타트를 끊은 학수씨는 운 좋게도 둘째 날 여가문화체험으로 뮤지컬 관람까지 하게 되어 들뜬 모습이었다. 뮤지컬 ‘아이다’ 공연이 있을 예정인 사룻데씨어터 옆의 카페에서 자몽 티와 맛있는 카

페치노를 시키고 신나게 수다를 떨며 기다리던 단기체험팀은 공연시작시간이 임박해서야 도착한 입주자 팀과 합류해 무사히(?) 공연장에 착석하게 되었다. ‘아이다’ 공연 즐거리는 대략 이렇다.

에티오피아 공주는 금지된 지역에 대한 탐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군사들의 침략 위협이 있는 곳에 갔다가 이집트의 젊은 장군 라마데스가 이끄는 군사에게 포로로 잡히고 만다. 에티오피아 공주의 뛰어난 무공과 역량에 반한 라마데스 장군은 공주에게 ‘아이다’라는 이름을 주고 자신과



정략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이집트 공주에게 노예 선물로 바친다. 포로의 신분이지만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다는 이집트 공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공주의 신임을 얻고 궁 생활을 해나가던 중 포로로 잡혀온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신분이 노출된다.



아이다는 자신들의 공주에게 기대를 거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희망이 부담이 되고 젊은 장군 라마데스는 뛰어난 역량과 미모를 지닌 아이다에게 자꾸만 빠져들게 된다. 자신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두 연인의 이야기는 마침내 아이다의 아버지이자 에티오피아의 국왕이 이집트 포로로 잡혀오면서 절정을 맞는다.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국민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 라마데스 장군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이다는 결국 라마데스에게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라마데스……. 이 둘의 대화를 이집트 공주가 우연히 엿듣고……. 둘의 관계는 마침내 이집트 왕에게 까지 발각된다.

결국 두 연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철없던 이집트 공주가 현명한 여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였고 라마데스와 아이다는 먼 훗날 현대시대에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는 설정으로 막이 내려. . . 앞으로의 희망찬 로맨스를 상상해볼 수 있다.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배우들의 공연에 넋이 빠졌던 우리 모두가 화장실도 참아가며 3시간을 버텼다. 뮤지컬 관람이 처음인 학수썩썩만 아니라 입주자들 그리고 코디까지도 공연의 감동에 젖어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각자 저마다의 소감을 떠들며 대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연시간이 저녁 8시에 시작되어 11시가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귀가시간이 비교적 많이 늦었다는 점 이었다. 이번 뮤지컬 공연을 마지막으로 16년 자립생활주택의 여가 문화체험은 종료가 됐다.

내년 17년에는 가형 주택 입주자가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또 다른 분위기의 주택이 될 것 같다. 새해에도 항상 입주자 분들 중심으로 개별지원 및 자기 주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자립생활주택이 되어야겠다.



체험!! 김치 담그기~~

전난희



2016년 11월 18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 프로그램 실에서는 '체험!! 김치 담그기'가 진행되었다. '체험!! 김치 담그기'는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하였는데 매년 진행할 때마다 강북센터 이용자분들과 회원 분들의 관심이 제일 많고, 호응도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체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 강북센터 스텝들은 17일부터 분주히 움직여 테이블 세팅과 참가자분들이 김치를 담아가실 포장박스과 김치를 버무릴 김장매트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 모습을 보며 올해 김치는 작년 김치보다 맛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5회째를 맞이하는 2016 '체험!! 김치 담그기'는 실습생인 박지훈 쌤과 허효숙 쌤도 참가하셨는데 지훈 쌤이 자기는 한 번도 김치를 담가본적이 없다며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체험!! 김치 담그기' 복장 풀 세트를 착용을 하였고 그 모습이 마치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를 닮아 완전 귀여운 모습이었다.



올해 '체험!! 김치 담그기' 행사는 작년에도 이어 장소를 강북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날씨와 공간적·시간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었고,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여 참여자분들이 자유롭게 그 시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인지 참여자분들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여러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테이블 세팅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다.

올해도 역시 '체험!! 김치 담그기' 홍보할 때부터 많은 관심과 문의를 주셨고, 행사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졌다.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되길…….

문지수



10월 22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다.

10월 22일 16:00 - 18:30,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콘서트' 행사의 막이 올려진 것이다.

분주히 움직여서 마을버스 타고 가는 길에 바람이 선선히 불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콘서트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 전!

소녀상이 건립되길 바라며 메모를 적어 게시판에 붙여놓고 포토 존에 사진 촬영도 하고나서 스텝으로 일 도와드렸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 콘서트' 관련 유인물 건네주면서 안내해주는 역할이다.

박남주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같이 스텝으로써 행사 시작 전에 적극적으로 일했다.

초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의아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두근두근 두근!

4시가 거의 다 되어 갈 무렵, 강북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참여자로써 대공연장에 입장하였다.

카메라 점검 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니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콘서트’가 시작했다. 극단을 보여주고 한 풀이 무용도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했다.

보지 못한 세 그룹 밴드들도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말이다.

어느새 무대는 후반부를 달리고 있었고, 합창단이 나와 천사 같은 미성의 합창 노랫소리 들려주고 모두 나와서 인사 후 막은 내려졌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콘서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북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길, 이 생각이 소식지를 읽으실 독자 분들도 콘서트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다.



이달의 정보

찾아가는 마동주민센터

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인력은 동별로 2~3명에 불과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작 현장을 돌보지 못하고 행정 처리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누적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서울시의 동주민센터를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연결하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촘촘한 주민 관계망을 형성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일까지, '15년 7월 80개동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기관 : 찾동시행기관

무엇이 달라지나? 나만의 복지플래너가 찾아와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출산가정, 빈곤위기 가정, 65세 도래어르신을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와 맞춤형 복지를 안내해드리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상담전문관이 복지·일자리·법률·자원봉사 등 궁금한 일을 상담해드리고 사례관리로 마을안의 모든 자원과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풍부한 경력과 정보를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상담전문관으로 배치하여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동주민센터가 사례관리의 중심이 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웃과 함께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복지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마을복지생태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회복된 마을복지생태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민주도 하의 공동체 회복이 이뤄 질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전 및 목표

서울시 비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찾든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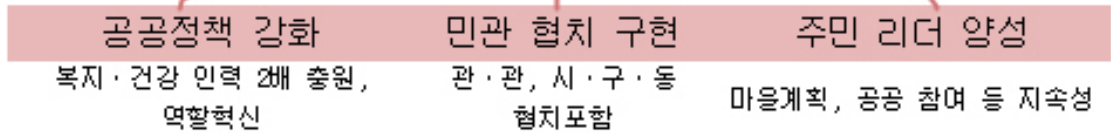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주민센터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과제



실행과제



출처- <http://welfare.seoul.go.kr/archives/47156>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년 한 해에 대한 사업평가 및 이용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 사 업 명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 일 시 : 2016년 12월 28일(수) 14:00 ~ 17:00
- 장 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 대 상 : 강북센터 회원 및 이용자
- 인 원 : 90여명
- 참여방법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www.kbcil.co.kr) 공지 확인 후 센터방문 및 전화를 통한 참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장애인자립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 02) 908-7776

※ 위 일정은 상시 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